

# 학교 폭력에 발차기 날리는 '공수도'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주저 없이 응징하는 공수도 소녀 채영,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순수하고 정의로운 소년 종구, 일진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소년 해성. 이 세 명이 모여 공수도를 통해 학교 폭력에 시원한 발차기를 날린다.

채여준 감독의 청춘 액션 영화 '공수도' 골자다. 이 영화는 인터넷 TV(IP TV)로 먼저 선보였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다음 달 극장에서 만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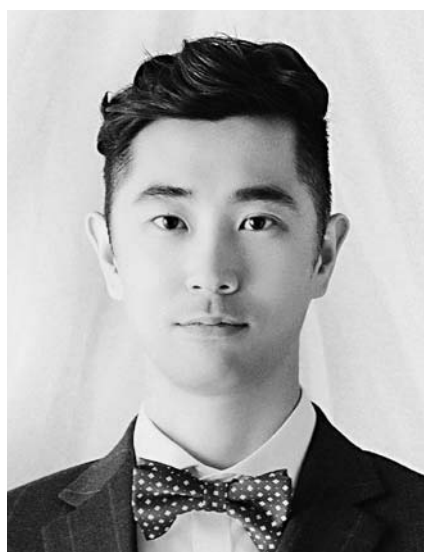
채 감독은 "싸움 잘하는 정의로운 무술 소녀인 채영 캐릭터에 끌려서 연출을 맡게 됐다"고 '공수도'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20년도 더 전인 제 학창 시절에도 학교 폭력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 '일진' 아이들도 선생님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던 시절이었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학생들이 더 끔찍한 일들을 겪는 것을 뉴스로 접하고 분노하고 놀란 적이 많았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를,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다루고 싶던 차에 '공수도'를 만났습니다"

각자 상황도 성격도 다른 영화 속 세 주인공은 만나면서 성장한다.

"채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싸우는 인물이지. 종구는 채영을 통해 '정의로운 힘'을 동경하게 되고 노력하죠. 해성도 역시 '정의 없는 힘이란 폭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채영 역시 종구·해성과 어울리면서 10대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싸움 장면이 많은 까닭에 배우들은 액



채여준 감독.



영화 '공수도'

## 내달 개봉하는 채여준 감독 청춘 액션 영화 "피해자들이 용기 가지고 대항했으면 하죠"

선 스크에서 2개월여 동안 액션을 연습했다. 채 감독은 "배우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할 정도로 다들 온 몸을 던져서 연습하고 촬영했다"며 "배우들에게 참 고맙다"고 전했다.

채 감독은 대중에게는 다소 낯설 수도 있는 배우들의 캐스팅 비화도 전했다.

"채영 역 정다운 배우는 '마녀'(2018)에 출연한 것을 보고, 제가 제작사에 먼저 제의했고, 종구 역 오승훈 배우는 제작사에서 미팅을 제의했어요. 해성 역은 딱 맞는 이미지의 배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손우현 배우는 처음에 종구 역할 오디션을 보러 왔었는데, 이소룡 트레이닝복과 안경을 입은 그 모습에서 저는 해

성이 보였어요" 그는 가라테라고도 불리는 공수도가 일본 무술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채 감독은 "영화 속의 극진공수도는 재일교포 최영의 총재가 창시해 한국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무도다"라며 "공수도도 일본 전통 무예가 아니라 고대 인도·중국에서부터 오기나와로 전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감독은 가수로도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리고 그의 동생 채기준 감독 역시 영화를 연출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오신 영화를 보면서 자랐어요. 자연스럽게 영화감독을 꿈꾸게 됐는데, 음

악도 하고 싶었죠. 음악은 나이가 들면 못할 것 같아 음악을 먼저 시작했어요. 2012년에 제2회 올레스마트폰 영화제가 열렸는데 당시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님, 집행위원장이 이준익 감독님이셨어요. 스마트폰으로만 찍어야 한다는 조건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장비 다 내려놓고 맨손으로 한번 붙자는 거네?' 싶었죠. 제 첫 작품인 '작전시티'가 이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채 감독은 "'공수도'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해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종구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대항하거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자신들도 지나온 그 폭력과 약육강식의 사회를 기억하고 자녀들이 혹시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 "슈돌·미스터트롯, 인권 침해"

"인위적 연출 트라우마 줄 수 있어...가이드라인 시급"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TV조선 '미스터트롯'이 아동·청소년의 심야 생방송 출연과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인위적인 연출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연대체 '팝업'(Pop-Up)은 지난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두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대체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졌다.

'미스터트롯' 13살 결승 진출자 정동원은 지난 13일 자정 이후 진행된 생방송에 출연했다. 제작진은 당시 '본인이 간곡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더라도 자정 이후로는 출연할 수 없다"며 "제작진의 해명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에 무지한 것은 물론 현행 법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지난 15일 방송에서 개리가 아들 하오 앞에서 권투를 하다 쓰러지는 연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체는 "자칫하면 아동에게 큰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방송사와 제작사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미스터트롯 정동원.

/TV조선 '미스터트롯' 캡처

## 진선규, 음악영화 '너와 나의 계절' 서고 김현식 연기

배우 진선규가 음악영화 '너와 나의 계절'에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엘클라이언 테데인먼트가 밝혔다.

영화 '걸캅스'의 정다원 감독이 연출하는 첫 번째 음악영화로, 진선규는 한국의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가수 고 김현식을 연기한다.

김현식은 1980년 데뷔해 '내 사랑 내 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사랑했어요' 등의 히트곡을 남기고 1990년 서른셋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측은 "진선규가 여전히 많은 뮤지션에게 영감을 주고 음악을 통해 살아 숨 쉬는 김현식을 어떻게 연기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영화는 오는 8월 촬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배우 진선규

## 올리브 예능 '밤블레스유2' PD 코로나19 확진

올리브 예능 '밤블레스유2' PD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작진과 출연진이 모두 자가격리와 검사에 들어갔다.

29일 방송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CJ ENM 직원은 '밤블레스유2' 주니어급에 속하는 PD다.

해당 PD는 지난 18일 미국 휴가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난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CJ ENM 사육 전체가 임시 폐쇄되고 방역 조치가 진행됐으며, 안에 머무르던 직원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밤블레스유2'는 송은이, 김숙, 박나래, 장도연 등 여성 예능인들이 의뢰된 고민을 들어주고 음식을 먹는 '푸드 테라피' 예능이다. 이들은 이날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공포영화 개봉에 혼영족·10대 관객 늘었다

3인 이상은 작년보다 절반 줄어...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관객이 급감한 가운데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는 '혼영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CGV에 따르면 지난 2월 1~3월 26일 극장을 찾은 혼영족 비중은 26.04%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4.32%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3인 이상 가족 관객은 13.84%로, 작년(29.16%)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주요 관람층인 20대(41.58%) 비중이 작년(31.16%)보다 늘어난 가운데 10대 관객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10대 비중은 작년 2.86%에서 올해 3.10%로 늘었다.

개편이 연기된 데다, 코로나 비수기를 뚫고 공포 영화가 대거 개봉하면서 공포 영화 주 관객층인 10대들이 극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개봉한 '인버저



인버저블맨.

/유니버설 픽처스 제공

블맨'은 4주 넘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스캐러티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일본 공포물 '온다' 등 공포 영화가 속속 개봉했다.

영화계 관계자는 "공포 영화는 주로 마니아층이 즐기 때문에 극장 참예기도 일정 관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CGV 전국 극장 중 35곳이 토요

일인 지난 28일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당일 관객은 6만3,279명을 기록했다.

지난주 토요일(22일) 7만2,707명보다 9,500명 가까이 줄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3월 30일 (음력 3월 7일)



子

48년생 곧 뜻을 이룰 것이니 걱정을 말라. 60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줄 것이다. 72년생 아무도 믿을 수 없다. 84년생 숨겨둔 재능을 펼치는 날이다.



丑

49년생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61년생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73년생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긴다. 85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해져라.



寅

50년생 충주교 노래할 운세이다. 62년생 몸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74년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 86년생 대세를 거스르지 말라.



卯

51년생 모든 분쟁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한다. 63년생 근심거리가 사라진다. 75년생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87년생 지나침은 모자람만 같지 못하다.



辰

52년생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다. 64년생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76년생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88년생 직장인은 인기가 높아지겠다.



巳

4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53년생 건강에 주의하고 낙상을 조심하라. 65년생 은혜를 배풀면 보답을 받는다. 77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요가 가지 마라.



午

42년생 행복을 만끽한다. 54년생 낮 맑은 새가 듣고 밤 맑은 쥐가 듣는다. 66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78년생 호랑이 없는 산중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



未

43년생 나의 경험이 빛나는 날이다. 55년생 매사에 몸을 사리고 조심하라. 67년생 최선을 다했다면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 보라. 79년생 꿈은 이루어진다.



申

44년생 귀인을 만나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56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바야 안다. 68년생 작은 힘들겠지만 결과는 좋겠다. 80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酉

45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57년생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라. 69년생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81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戌

46년생 수리를 따르면 백사대길하리라. 58년생 유언비어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70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82년생 재주를 발휘하여 주목을 받는다.



亥

47년생 현실을 떠난 계획은 망상일 뿐이다. 59년생 지금 필요한 것은 용용성이다. 71년생 오늘은 조용히 지내라. 83년생 참고 인내하면 서 기회를 노려라.